

“가족 수발까지” 방문 요양사 가정부 취급

전남 10명 중 7명 “설거지·식사 준비 등 부당 업무” 요양기관 난립에 경쟁 심화...기관, 적극 대처 없어

전남지역 요양보호사 10명 중 7명은 빨래와 설거지 등 요양업무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전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가 전남 소재 장기요양기관(시설·방문) 30곳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305명을 상대로 설문·면접조사를 한 결과, 방문 요양보호사 77%가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업무 수행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6%는 ‘가끔 한다’고 답했고, 25%는 ‘가끔 매일 한다’, 16%는 ‘자주 한다’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빨래나 식사준비 등 업무 외적인 일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주말 동안 대상자 가족들이 미뤄놓은 설거지를 시키거나 잠심부름까지 하고 있다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대답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확보 경쟁을 해야 하는 기관들로서는 이용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요구만 들어줄 뿐 요양보호사 편에서 적극적으로 방

어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요양기관은 이용자 불만이 제기됐을 때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요양보호사를 탓하거나 요양보호사 스스로 고충불만의 위험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부당업무 수행이 일상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언어·신체 폭력에 당했다’고 답했다. 시설의 경우 보호 대상자 대부분이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언어·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피해를 보더라도 치매 등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대상자를 처벌하거나 규제

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시설 요양보호사들이 무방비 상태로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라고 센터는 지적했다. 대안으로 치우개선비 원상 회복 등 임금향상, 공익광고 등을 통한 사회 인식 개선, 노인장기요양시설 설립절차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공간 설립 등을 제시했다. 박주승 비정규직노동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정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계기로 대안 마련 등 전남지역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미·중 추가 관세 부과 90일 유예 한숨 돌린 한국경제...협상 주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세계 7위 수출대국인 한국경제의 대외 리스크가 축소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에서 향후 90일 동안 상대국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현행 10%인 관세를 25%로 추가 상향 조정해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었다. 1100억 달러(123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도 즉각적인 대응으로 응수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무역전쟁 확전은 당분간 유예됐다. 미·중은 앞으로 90일간 경제적인 기술이전·지식재산권·비관세장벽 등의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으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10%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경제의 대표적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왔다. 세계 7위 수출대국인 한국의 수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 간 무역전쟁의 확전이 유예되면서 한국경제의 대외 리스크도 당분간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중이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의 약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 6000만 달러 감소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다만, 90일간 부과 유예됐더라도 아직 무역갈등이 향후 확대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차세대 소형위성 1호’ 내일 오전으로 발사 연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과학연구 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1호’가 4일 오전 3시 32분(현지시간 3일 오전 10시 32분) 미국 밴덴버그(Vandenberg) 공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과기부는 앞서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3일 오전 3시 32분께 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곧이어 발사를 담당할 스페이스X 측이 기상상황 변화를 이유로 발사일을 예비일이었던 4일로 변경하면서 하루가 다시 연기됐다. ‘차세대 소형위성 1호’는 당초 지난달 20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스페이스X가 발사체 ‘فال콘(Falcon)-9’의 1단 추진체에 대한 세부 점검 기간을 연장, 발사일이 29일로 1차 연기됐다. 기상 악화로 인해 다시 연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제3회 운동주서시문학상, 제3회 정남진시인시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정영 시산맥 대표, 서시해외작가상 신지혜 시인을 대신해 대리 수상한 김삼미 시인, 서시문학상 수상자 전동균 시인, 서시문학상 제전위원장 최문자 시인, 해외작가특별상 이유식 시인, 정남진시인시문학상 수상자 최재훈 시인. /김진수 기자 jeans@

‘운동주서시문학상’ 전동균 시인 상금 1천만원

광주일보·시산맥 시상식...해외작가상 신지혜·특별상 이유식 상패·상금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3회 ‘운동주서시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수상자와 가족, 시산맥사회 회원, 심사위원, 문단 및 출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17면〉** 시상식에서는 운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자인 전동균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또한 운동주서시문학상과 함께 제정된 서시해외작가상 수상자인 신지혜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서시해외작가특별상 수상자인 이유식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정후식 이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올해는 운동주 시인이 탄생한지 101년째 되는 해로 지난 한 세기

를 매듭짓고 새로운 한 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해였다”며 “운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정신과 가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귀중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사 66주년을 맞이하는 호남 최고의 전통 일간지인 광주일보는 그동안 호남예술제, 신춘문예, 문화전 문매거진 ‘예향’ 발행 등을 통해 호남의 문화예술 위상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운동주의 시 정신을 선양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상식 발행인 문정영 대표는 “운동주 시인의 정신을 기리고 ‘서시’의 가치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호남의 대표 일간지 광주일보와 이상을 제정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며 “앞으로도 이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행사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식전행사로 운동주 시인 추모 헌화, 강미영 단원의 진도 북과 가생우 공연, 박금출 시산맥사회 후원회장의 건강강좌가 펼쳐졌다. 이에 앞서 제1회 서시 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운서(고려대 국문과 4학년) 학생, 박시경(연세대 북한 동아시아과 1학년) 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편 시산맥사회가 주관한 제3회정남진시인문학상 수상자인 최재훈 시인에게 신인상 등단패 증정식도 함께 열렸으며 2018년 하반기 시집을 발간한 고은수, 권상진, 김금희, 김지현, 김현주, 노재순, 박찬희, 안예정, 이호근, 임내연, 황상희 시인에게 상금이 지급됐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버지 부시’ 전 美 대통령 타계

5일 국장으로 치를 예정 유해 오늘 의사당 안치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타계한 조지 H.W. 부시(사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은 11년 만에 국가가 주관하는 국장(國葬)으로 치러지며 유해가 의사당에 안치돼 조문이 이뤄진다. 1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닐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들은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3일 의회 중앙홀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의 시신은 현재 안치된 텍사스주에서 메릴랜드의 앤드루스 공군

기지를 거쳐 워싱턴에 3일 도착할 예정이며 당일 오후 5시 의회에서 도화 행사가 열린다. 일반 국민에게는 3일 오후 7시 30분부터 5일 오전 7시까지 공개돼 조문이 이뤄진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텍사스와 워싱턴DC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며 국가 주관으로 치러진다. 이같은 국장은 지난 2007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라고 W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으며 당일 워싱턴 국가성당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투자 가치 좋습니다★

-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혹사 등 매입함. · 인접 땅지도 15만원에 매매 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매매 - 6000만원

문의. 010-6834-7400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제조사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광역시 인구조번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돈돈’육아 성공비법
함께 하면 돈돈 육아 성공비법

직장노동자
직장인 & 대가족을 위한 돈돈 육아 성공비법

- 수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아이'에서 함께 하는 '아이'가 되세요!
- 육아대디 지지법: 아이들의 흥미와 원동력, 창의력,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 직장 가족 이웃: 직장인 & 대가족을 위한 돈돈 육아 성공비법
- 육아후수 주의법: 서민 육아에 필수! 대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돈돈육아 동참법: 혼자 육아, 아이 연인 지망, 너무너무! 육아 커뮤니티로 응원해주세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10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12월 21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소유공장 만들어 드립니다!

**2018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0일(화) ~ 2018년 12월 28일(금)
- 교육기간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2월 15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H. 010-9416-1200 T. 062)230-77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영광군 신북면 월지리 김나무밭 746㎡ 전원생활용 4천만원
- 무안군 삼합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단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시 30분내 46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2층 80㎡ 8700만원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 원룸 1억7천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단지 641㎡ 주택있음 다세대 적합 1억5천
- 무안 해미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주택있음 은행 9600 매도 3억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천계 목포대항부근 주거지 단지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단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동구 서석동 단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양산동 단지 231㎡ 4층 인접과 원룸·투룸 497㎡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상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팬션 순천만 대대도 땅 332㎡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잘됨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0억)
- 완도읍 새모델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김정기(하) 23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